

두산갤러리, 젊은 작가들의 상상력이 빛나는 곳

두산갤러리 '리오프닝 두산 갤러리 서울'展... 19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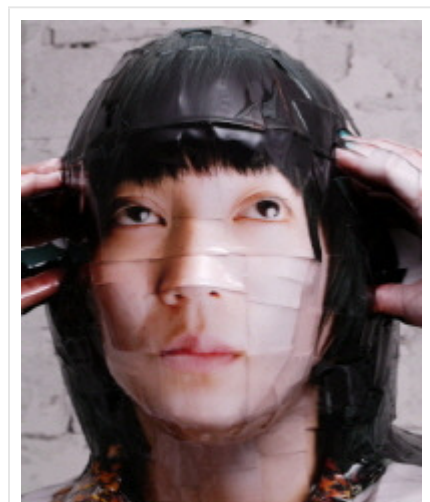
머니투데이 이연주 기자 | 2012.08.11 09:55



↑원도우갤러리에 전시된 이형구의 작품 'Homo Species Anatomy Figure I' 2009, mixed media, size variable. (오른쪽이 상세 사진) ©두산갤러리

서울 종로에 위치한 두산아트센터 1층에 자리한 두산갤러리가 새롭게 단장을 했다. 이 곳 원도우갤러리(쇼윈도 형태의 전시장)에 걸린 작품 한 점이 눈에 확 들어온다. 우스꽝스러운 해골모양의 이 조형물은 2007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로도 참여한 조각가 이형구의 작품 'Homo Species Anatomy Figure'(2009)이다.

두산갤러리가 재개관을 기념해 지난달 18일부터 두산 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들의 그룹 전 '리오프닝(Reopening) 두산 갤러리 서울'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탁 트인 흰 벽의 공간에 서로 다른 개성의 작품들이 조화를 이룬다.



두산갤러리는 2007년 개관 이후 한국의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와 작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09년 미국 뉴욕 첼시에 갤러리와 레지던시를 열고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3명씩 모두 6명의 작가를 뽑아 지원한다. 두산갤러리 전시 기회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작업실은 물론 스튜디오 방문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 아티스트 토크 등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권오상, Control(detail), 2007, c-print, mixed media, 177x74x43 cm ©두산갤러리

전시장에 들어서면 얇은 알루미늄 선을 이용해 연속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단순한 드로잉처럼 표현해 색다른 리듬감과 운동감을 주는 김인배의 조형작품이 눈에 띈다. 선명한 색채로 익숙한 자연과 도시 공간을 화면 속에서 대담하게 나누고 미묘한 시점 변화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민성식의 작품, 사진을 오려 붙여 실제 크기와 같게 만든 사진 조각가 권오상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차가운 금속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최우람, 사진·회화·영상 등을 통해 현대인의 욕망을 비판적으로 다룬 김기라의 대형 벽화작품, 사진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장르적 확장을 시도한 백승우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그 밖에도 김인숙 박윤영 성낙희 이동욱 이주요 정수진 홍경택 등 모두 14명이 참여해 독특한 작품세계를 선보인다. 오는 19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02)708-5015



↑새롭게 단장한 두산갤러리의 '리오프닝 두산 갤러리 서울전' ©두산갤러리





↑김기라, Wall Painting with Still Life, 2008-2012, paint on the wall, size variable ©두산갤러리

[주식대출] 마이너스대출방식 연 6.9% 확정금리, 연장수수료 없이 5년간 ☎ 1577-5852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80911402994030&type=1>

 [프린트](#) [닫기](#)